

신안군, 제4기 홍어썰기학교 수강생 모집

4월부터 9월 말까지 운영...10일까지 접수

홍어썰기 및 자격증(중급) 과정 병행 추진

신안군은 제4기 홍어썰기학교를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지역 주민 및 귀어(희망)자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흑산면사무소 또는 신안군관광협의회흑산산지회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홍어썰기학교는 신안군에서 수산물 판매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고품화에 따라 명절이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홍어를 썰는 인력이 부족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군 관광협의회흑산산지회 주관으로 시작하였다.

홍어썰기반은 홍어 숙성, 썰기, 포장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홍어썰기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홍어썰기 기술자' 초급 민간자격증 3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초급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중급 민간자격증 시험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안군 흑산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홍어주낙어구 정리 작업대 90대를 공급 지원하여 고령의 어촌 일손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홍어를 '세계 최우수관광마음으로 선정돼 유명한 퍼플섬처럼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흑산 홍어잡이 어선은 19척으로

TAC 592톤의 물량을 확보하여 조업중에 있으며, 연간 59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0여명 대상...안전 일터 조성 '총력'

함평군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2월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현업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제1차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 교육은 현업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작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요령,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등이 다뤄졌다.

군은 3월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등을 주제로 2차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남악호산나공립어린이집 개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 마련

무안군은 2월 28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남악호산나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한다.

무안군은 지난해 4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공개모집했고 무안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남악호산나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다.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기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10년간 임대차와 운영권 이전계약을 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는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받는다.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산 군수는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

법성어촌계 시범 운영, 제도 안착 적극 지원

영광군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실명제'는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제도로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적당 80kg 마대 100장씩을 지급하고, 제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시범 도입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및 바다 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종만 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건강한 먹거리 시대' 머리 맞댔다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 개최...다양한 민관협력 시책 기대

영암군은 지난 2월24일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영암군 로컬푸드 활성화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회원과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군의 현황분석과 정책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각종 로컬푸드 활성화 제안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열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생산자를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입지적 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운



동시설 및 줄음쉼터 설치, 진출입 교통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건의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오늘 건의된 제안들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점검

박홍률 목포시장이 2월 28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시장은 당일 새단장 후 재개관한 목포근대역사관 2관과 갑자옥 모자옥의 역사성을 살린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조성 준비 현장을 둘러보고 갑자옥 쉼터 등을 점검했다.

이는 최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공유재산 매입 시 지분 미취득, 공유재산 행정절차 부실,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꼼꼼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목포의 원도심은 조선시대 세종21년 세워진 목포진부터 근대 자주 개항의 역사, 산업화 시기 변화한 항구도시로 발전하기까지 도시 역사를 간직한 '지붕없는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구) 목포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구) 심상소학교 등 근대적 자산이 밀집해 있다.

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앞으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회, 언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